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8(금) ~ 2024.11.14(목)

제공일시 2024 11 22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8(금) ~ 2024.11.14(목)

제공일시 2024 11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바이든 행정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할 것”… “트럼프, 지속적 지지 가능”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원자력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및 기존 시설 보수를 통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0기가와트(GW) 추가 배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

- 또, 백악관은 10년 이내 35GW 신규 용량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함

-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선거 유세 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천지일보 2024.11.13)

2. EU, 일부 나라의 개정 요구에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안’ 유지

-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법안 시행에 합의함. 그러나 차량 제조업체를 지닌 EU의 일부 국가는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특히, 이탈리아의 반발이 심함

-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가 체코와 EU에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더 광범위한 솔루션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 초안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한편, EU 기후정책 담당 집행위원인 웝크 훅스트라는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안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임팩트온 2024.11.11)

3. COP29, 첫날 UN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에 합의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함

-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은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들이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함. 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임

-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함

-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국가의 배출권을 구매하게 됨

(경향신문 2024.11.12)

국내 정책

1.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함. 배터리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

-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임

(파이낸셜뉴스 2024.11.10)

2. 해수부,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서 녹색해운항로 추진 등 논의

- 해양수산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녹색해운항로 추진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힘

- 우선, 11일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미국 국무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추진 현황과 친환경선박·대체연료 관련 연구 등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임

- 같은 날 블루카본 연구·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해,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인증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임

- 해수부는 'IPCC 인벤토리 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총회 의제 상정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아주경제 2024.11.10)

3. 기재부·ADB, 중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300만달러 출연 협정

- 기획재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300만달러(약 41억원) 출연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힘

- 기재부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한 ADB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에 출연 협정을 체결함

-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기후준비기금을 통해 중앙아시아 인프라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할 계획임

- 앞으로 2024~2026년 3년간 총 300만달러(약 41억원)를 출연할 예정임

(데일리안 2024.11.10)

글로벌 기업

1. 도요타 '中 차별화 전략' 시동… "250만대까지 생산 늘린다"

- 도요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5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9일(현지시각) 보도함

- 매체는 도요타가 2020년대 말까지 연간 300만대까지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이 수치는 2022년 생산량 184만대보다 63%나 증가한 것임

(지피코리아 2024.11.11)

2. MS, 최초의 목재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탄소 배출량 최대 65% 감축

- 마이크로소프트(MS)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강철과 콘크리트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초경량 고강도 목재로 만든 최초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함

- MS는 교차 적층 목재(Cross-laminated timber, CLT)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해 건설하고 있음. CLT는 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화성 처리된 건축용 목재 소재로, 강철과 콘크리트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임팩트온 2024.11.7)

3. "대만 TSMC, 美 정부 명령으로 AI 반도체 中중국 공급 중단"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국에 첨단 AI 칩 공급을 중단하기로 함. 이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됨

-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함

-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전함

(디지털타임스 2024.11.10)

4. 중국석유화학, 첫 지열 발전 시범사업 망 연결 완료

- 시노펙은 자회사 중국석유화학이 중국 산시성 셴양에서 추진 중인 중·층 지열 발전 시범 사업의 망 접근 허가를 취득해 전력 생산 그리드에 공식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힘

- 시노펙에 따르면, 망에 연결돼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지열 전력 생산에 대한 중국석유화학의 첫 진입 시도이자, 열전 헬륨 통합의 첫 시범사업임

- 중국석유화학은 이를 통해 지열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중국의 에너지 조합을 최적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됨

(투데이에너지 2024.11.7)

국내 기업

1. LG엔솔, 美리비안도 뚫었다… 원통형 '4695' 배터리 8조원 공급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함. 업계에서는 배터리 수주 규모가 8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중 '4695(지름 46㎜, 높이 95㎜) 배터리'임

- 물량은 총 67기가와트시(GWh)이며, 5년간 공급할 예정임. 리비안이 새롭게 출시할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2에 우선 탑재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 2024.11.8)

2. 현대건설, 사우디 '1조 잭팟'… 초대형 프로젝트 따냈다

- 현대건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사우디전력청(SEC)에서 7억2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힘

- 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에 있는 PP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의 초고압 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임.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1구간)를 맡음

(한국경제 2024.11.12)

3. 中 자율주행 손잡은 현대차… 내년 '드라이브GPT 전기차' 선뵌다

- 현대자동차가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하오모(HAOMO)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EV)를 출시함.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내놓는 첫 전기차(EV) 전용 모델임

- 현대차는 강력한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테슬라와 현지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추격한다는 계획임

- 11일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 현지 법인인 베이징현대는 하오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중국 시장 전용 모델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

(서울경제 2024.11.11)

4. 대주전자재료, 印 최대 배터리소재 기업과 흑연 실리콘 음극재 개발·공급계약

- 대주전자재료가 인도 최대 배터리 소재 기업 엡실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Epsilon Advanced Materials, EAM)와 손을 잡음. 11일 EAM에 따르면, EAM과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에 쓰이는 흑연이 풍부한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EAM과 대주전자재료는 450~600mAh/g 용량 수준의 실리콘산화물(SiOx) 방식 기반의 흑연-실리콘 복합 음극재를 개발한다는 목표임

(더구루 2024.11.1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1.8(금) ~ 2024.11.14(목)

제공일시 2024 11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UAE, 청정에너지 대규모 투자... 넷제로 위해 2030년까지 76조원 투입

-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수년간 청정 에너지 용량과 생산을 크게 늘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2000억디르함(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는 UAE 에너지·인프라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가 아부다비에서 열린 ADIPEC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에서 밝힌 내용으로, UAE의 경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것임

- 알 마즈루이 장관은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라며 UAE의 기후 목표 달성 의지를 강조했음

-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UAE는 일일 320만 배럴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 중 최초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음

- 최근 몇 년간 UAE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회의에서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입해 기후 투자 플랫폼인 알테라(ALTÉRRA)를 출범했음

- 이 플랫폼에는 블랙록, 브룩필드, TPG 등 글로벌 투자 대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 투자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

- UAE의 국영 에너지 기업 ADNOC도 올해 초 230억달러(약 31조원)를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저탄소 솔루션에 할당하겠다고 발표하며, 2045년까지 넷제로 운영 배출 달성 목표를 추진 중임

- 또, ADNOC은 기존 목표를 앞당겨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의 탄화수소 생산을 목표로 설정해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임

- 알 마즈루이 장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UAE가 수립한 ‘에너지 전략 2050’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1500~2000억 디르함(AED)을 동원하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임.

-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세 배로 늘리고,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알 마즈루이 장관은 ADIPEC에서의 연설에서 “UAE가 자국을 넘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40개국 이상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용량을 최소한 세 배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음

- UAE는 특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53GW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약 150GW로 늘릴 계획임

- 이 중 태양광 발전은 8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UAE는 중동 내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임

(임팩트온 2024 11 8)